

# 현안과 과제

2013년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  
① 바트 경제권의 부상과 대응

## &lt; 요약 &gt;

■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바트 경제권**

바트 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5개 국가의 소규모 경제권을 일컫는다. 해당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가 유사하며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에 들어 경제적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다.

바트 경제권의 전세계 생산 비중은 현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 양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최근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기로의 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 증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6%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된다.

■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 및 한계**

바트 경제권 지역은 현재 소비시장, 자원 조달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향후 중국에 이은 글로벌 생산기지로써의 성장이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총인구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존자원이 존재하지만 소비력이 낮고 자원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하며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향후 생산기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트 경제권 지역은 생산기지로써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업 진출 환경, 영토 분쟁과 내전 등 정치·외교적 리스크를 지닌다. 우선 각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며 태국을 제외하고는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도로, 철도 등 기본적 인프라 시설이 정비된 곳이 많지 않아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베트남은 영토 분쟁, 미얀마와 태국은 반정부 시위의 위협성이 내재한다.

■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최근 한국은 바트 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출비중과 투자규모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 바트 경제권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수출비중(5개국 총수출액/한국의 총수출액) 또한 상승했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진출을 중심으로 투자를 적극 늘리는 상황이다.

■ **시사점**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바트 경제권의 부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현 단계에서는 바트 경제권의 시장 규모보다는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진출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단 바트 경제권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우수한 임금경쟁력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인프라 기반, 열악한 기업환경, 사회 내 부정 부패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역 고유의 높은 정치 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 1. 신흥 유망시장으로 주목받는 바트 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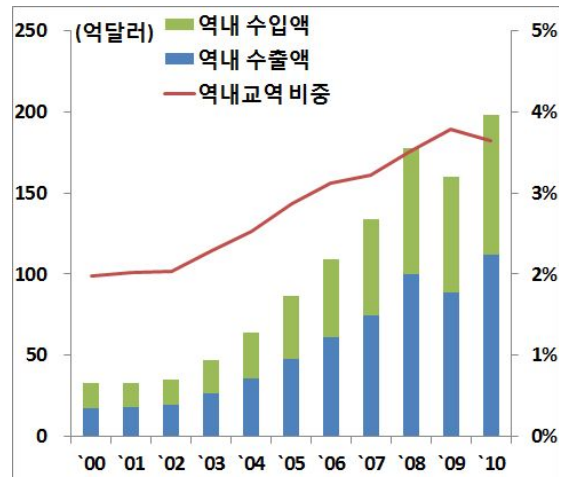
### ○ 개 요

- (정의) 바트 경제권이란 태국의 화폐인 바트(Baht)화의 영향력에 따라 형성된 소규모 경제권을 일컫음
  - 일반적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을 바트 경제권이라고 지칭함
- (지리적·경제적 연관성) 해당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가 유사하며 역내 교역이 활성화되는 등 최근에 들어 경제적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음
  - 태국의 대중·대미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아 역내 총교역비중은 약 3.6% 수준(2010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역내 교역 비중이 각각 61.6%, 33.0%, 28.6%에 달하고 있음<sup>1)</sup>
  - 바트 경제권은 ASEAN 뿐만 아니라 ACMECS,<sup>2)</sup> CLMV<sup>3)</sup> 등 역내 지역의 경제 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경제지역임

<바트 경제권의 위치>



<바트 경제권의 역내 교역>



자료: UN Comtrade.

1) 통계상으로 포착되지 않는 밀무역규모까지 고려하면 역내 교역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됨  
 2) 인도네시아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의 경제협력전략(ACMECS : Ayeyawady-Cao Praya-Mekong Economic Strategy)  
 3)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의 경제협력전략(CLMV : Cambodia/Lao PDR/Myanmar/Viet Nam)

## ○ 바트 경제권의 규모

- (주요 지표) 바트 경제권은 총 인구 2억 3천만명으로 한국의 약 4.7배, 총 면적은 약 19.4배에 이르는 규모

- 바트 경제권 국가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으로 약 8,900만명이며 태국과 미얀마 또한 6,000만명 이상의 인구 보유
- 5개국 중 가장 국토 면적이 큰 국가는 미얀마이며, 베트남은 약 3,400km의 해안선을 보유
- 태국과 베트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주요 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임

- (경제 규모) 바트 경제권의 전세계 생산 비중은 현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전세계 총생산중 바트 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0.4%에서 2010년 0.8%로 낮지만 2000년 이후 성장세가 가파른 상황
- 5개국의 총 1인당 GDP는 1990년 약 740달러에서 2011년 2,28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IMF에 따르면 2017년 3,500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바트 경제권의 주요 지표>

	단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합계
인구	만명	6,400	8,900	1,500	630	6,200	23,630
면적	km <sup>2</sup>	513,000	331,000	181,000	237,000	677,000	1,939,000
국내총생산(실질)	100만\$	345,672	122,722	12,890	8,302	51,444	541,030
세계경제비중	%	0.49	0.18	0.02	0.01	0.07	0.77
1인당GDP	\$	5,395	1,374	853	1,320	824	2,280
주요 산업	-	제조업	제조업	농업 농림업	농업 광업	농업 임업	-
주요 자원	-	석고, 주석	석유, 보크사이트	철, 금, 망간	금, 동, 석고, 주석	아연, 주석, 천연가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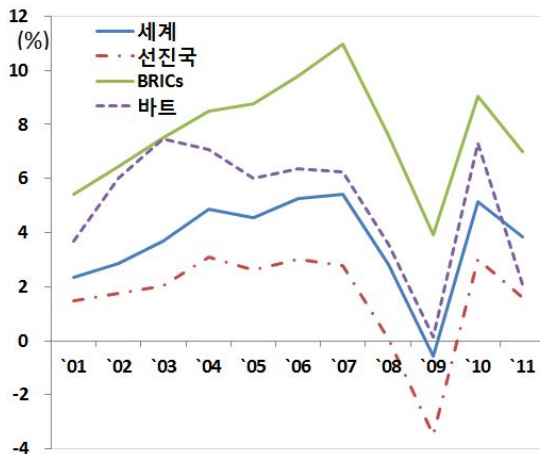
자료: IMF, CIA.

주: 2011년 기준.

○ 바트 경제권의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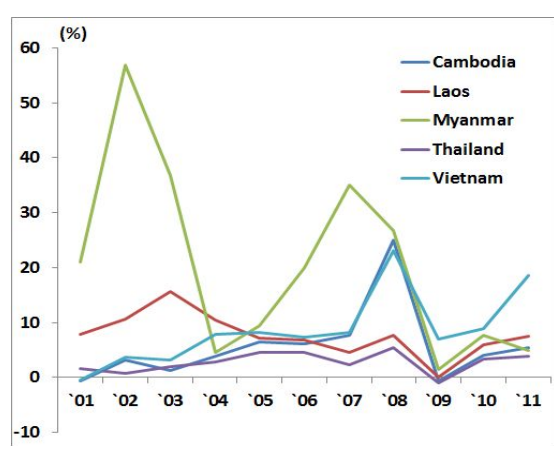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금융위기에도 양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으며 향후 6% 이상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
  -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2001~11년) 캄보디아와 태국은 약 2배, 베트남 2.7배, 라오스 4배, 미얀마는 7배에 달하는 국내총생산 증가를 기록<sup>4)</sup>
  -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2012년 3.3%, 2013년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신흥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2012년 5.3%, 2013년 5.6%), 그 중에서도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물가상승률) 2008년 이후 물가변동폭이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자본 유입,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불안요인 내재
  - 2001-06년과 2007-11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경우 미얀마(23.6→14.5%), 라오스(9.7→5.1%)와 달리 베트남(5.0→13.0%)과 캄보디아(3.3→8.0%)는 상승세를 보임
  - 다만, 태국의 물가는 2001-06년 2.7%에서 2007-11년 2.8%로 바트 경제권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바트 경제권 경제성장률>



자료: IMF.  
주: 경제권 성장률은 역내 국가의 가중평균치.

<바트 경제권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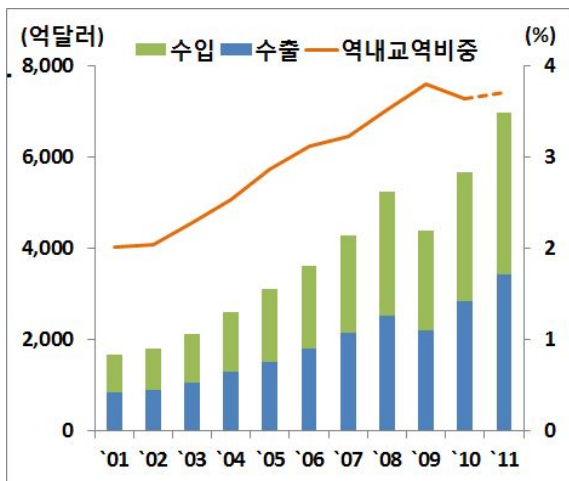


자료: IMF.  
주: 연평균 성장률 기준.

4) 다만 2011년은 태국 대홍수의 영향으로 바트 경제권 전체 경제성장률이 2.1%로 다소 위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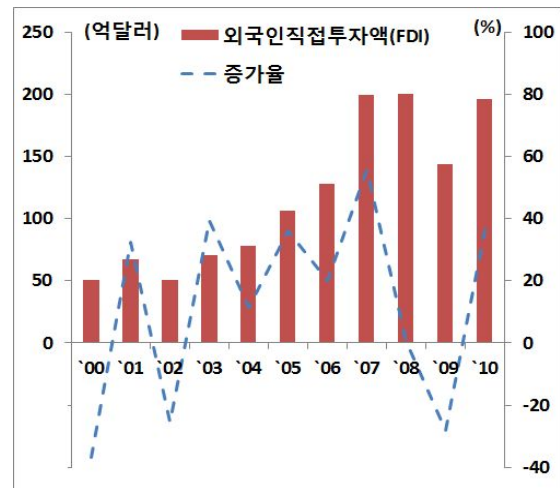
- (교역 규모) 바트 경제권 지역의 무역 거래 활성화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수입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
  - 5개국의 2011년 총 수출액은 3,420억 달러, 수입액은 3,540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총무역액은 약 6,95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3% 상승
  - 태국 4,550억 달러, 베트남 2,000억 달러, 미얀마 180억 달러, 캄보디아 160억 달러, 라오스 50억 달러로 태국과 베트남의 무역 규모가 압도적
  - 2009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특수성을 제외하면 바트 경제권 지역의 총무역액은 2006년 이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최근 외국인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성장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자본축적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 5개국의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19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4% 상승
  - 국가별로 살펴보면 태국 96억 달러, 베트남 80억 달러, 라오스 2.7억 달러, 캄보디아 7.8억 달러, 미얀마 9.1억 달러로 집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금융 및 자본 시장이 안정될 경우 투자 유입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

<바트 경제권 교역 규모>



자료: IMF, UN Comtrade.  
 주: 2011년 역내 교역비중은 추정치.

<바트 경제권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UN, IMF.  
 주: 순투자액 기준.

- (국가별 산업 구조) 베트남과 태국은 제조업,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는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보유
  - (태국) 수출이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출중심구조로 제조업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주요 수출품 1, 2위는 컴퓨터와 자동차임(2010년 기준)
  - (베트남) 태국과 같이 적극적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제조업이 성장 견인 차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분야임
  - 또한 베트남은 해안선이 3,260km에 달하여 연안어업 및 양식업이 발달하였으며 브라질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커피 수출국임
  - (미얀마· 캄보디아) 노동집약적 산업, 특히 봉제업 중심의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업, 농업, 광업 등에서도 잠재력 보유
  - (라오스) 천연자원 부문(광산 및 수력발전 분야)에 대한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자원개발 분야가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성장
  -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수력전력 대부분이 태국으로 수출되어 태국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따른 라오스 전력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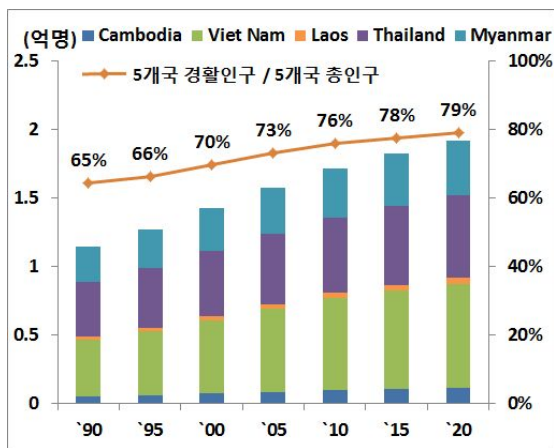
## 2. 바트 경제권의 잠재력 및 한계

### 1) 잠재력

-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등의 장점과 더불어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인도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이 기대
- (풍부한 노동력) 바트 경제권의 경제활동가능인구는 1억 7,000만 명(2010년 기준)으로 UN에 따르면 2020년 약 1억 9,00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
  - 경제활동가능인구(15세 이상)의 비중은 2000년 69.9% 2010년 76.1%, 2020년 79.1%의 추세로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지역
  -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급속하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해당지역은 장기적으로도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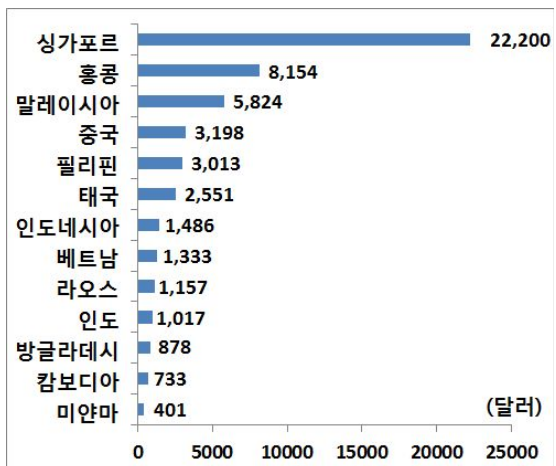
- (높은 임금 경쟁력)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중국의 약 1/3수준이며 캄보디아는 1/4, 미얀마는 1/7 수준으로 중국에 비해 임금 경쟁력이 우수
  - 2011년 기준 각 국의 총 최저임금(연봉기준)은 미얀마가 약 400달러, 캄보디아 가 약 700달러로 가장 낮으며 그 외 국가들도 중국과 비교시 우수한 임금경쟁력을 보유
  - 이에 비해 중국 정부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 (중국·인도 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 바트 경제권은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인도를 겨냥한 생산기지로써 활용 가능
  - 바트 경제권이 위치한 인도차이나 반도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길목임
  - 육로 이용 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중국과 직접 연결되며, 해로로는 미얀마·태국이 인도와, 베트남이 중국과 근접함

<바트 경제권 경제활동가능인구>



자료: UN, ILO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계산.  
 주: 경제활동가능인구 = 15세 이상 인구.

<아시아 주요국 총 최저임금(2011년)>



자료: KOTRA, Thai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주: 총 최저임금 = 최저임금 + 의무복지비용, 연봉기준.



○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현재 구매력은 낮지만 성장률이 높아 미래 세계 경제의 주요 소비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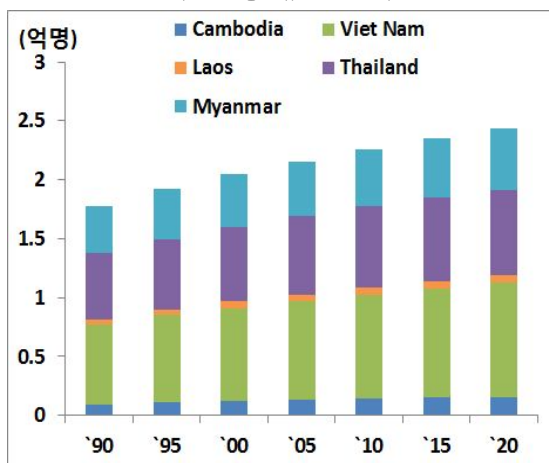
- (거대 인구 규모) 바트 경제권은 2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소비시장

- 각국의 총 인구는 2010년 기준 라오스 620만 명, 캄보디아 1,400만 명, 미얀마 4,800만 명, 태국 6900만 명, 베트남 8,800만 명으로 총 2억 2,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
- UN에 따르면 향후 이 지역 인구는 2015년 2억 3,500만 명, 2020년 2억 4,3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 (국민소득의 빠른 증가) 태국 이외의 국가들은 소비력이 낮아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지만 1인당 GD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각국의 1인당 GDP는 태국이 5,000달러 수준임에 비해 베트남과 라오스는 약 1,100달러,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약 750달러를 기록(2010년 기준)
- 10년간의 1인당 GDP 변화를 살펴본 결과(2001~10년) 태국과 캄보디아는 약 1.5배, 베트남은 2배, 라오스는 2.5배, 미얀마는 3배 증가

<바트 경제권 인구>



자료: UN, ILO.

<바트 경제권 1인당GDP(달러)>

	'90	'00	'10
태국	1,521	1,983	4,992
미얀마	—	177	741
캄보디아	105	288	752
라오스	218	308	1,105
베트남	98	401	1,173

자료: IMF.  
주: 실질GDP기준.

○ (자원 조달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자원 개발 및 수송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자원 상당수는 미개발 상태이나 다양한 부존자원의 존재 확인<sup>5)</sup>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미얀마의 천연가스, 베트남의 석유 및 무연탄을 주목
  - 천연가스는 2001년 이후 미얀마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현재 Yetagun 및 Yadana 가스전에서 약 12억 cf/d<sup>6)</sup>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태국에 수출
  - 베트남은 아시아 6대 석유생산국으로 전체 매장량은 약 32.5억배럴로 추정되며 추가 매장량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됨
  - 또한 베트남은 세계 무연탄의 주요 생산국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를 차지
- (다양한 광물 및 산림자원 보유) 베트남에는 LEC칩, 태양광, 휴대전화 등의 원자재인 보크사이트가 매장되어 있으며 미얀마에는 산림자원이 풍부
  - 보크사이트<sup>7)</sup>는 베트남 매장 광물자원 중 가장 많은 부존량을 가진 광물로 지금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약 55억 톤 규모
  - 미얀마는 전체 국토의 약 절반(3,340만/6,770만ha)이 산림지역으로 중국, 인도에 이은 아시아 제3위의 산림자원 보유국이며 주요 임산자원인 티크(Teak)원목의 식림 면적은 약 64.8만 에이커에 상당
  - 태국은 시멘트·장석·석고·주석을, 라오스는 금, 동, 석고, 주석 등을 주로 생산
  -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전쟁, 국제적 갈등, 관련 정부정책 부재 등으로 탐사 및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
- 본격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설비, 운송수단 등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위한 해외자본유치가 선행 과제
  - 수요 급증으로 원자재 가치는 지속적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어 매장 자원이 개발될 경우 해당 지역은 안정적 성장이 가능
  - 매장자원의 확보·활용을 위해서는 인프라시설 구축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해외자본유치가 요구됨

5) 한국광물자원공사(www.kores.or.kr) 참조

6) 日 생산 입방 피트(cubic feet per day)

7) 보크사이트 1톤 체련시 회소금속 갈륨을 약 50g 추출할 수 있음. 갈륨은 LEC칩, 태양광과 휴대전화 등의 주원료로 사용됨. ('회유금속과 도시광산업의 미래와 시장전망', 테이코, 2011)

2) 한계

○ (열악한 진출환경) 바트 경제권은 중국과 비교 시 기업진출환경, 부패, 인프라 기반 등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임

- (부정부패 및 기업진출환경 열악) 각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며 태국을 제외하고는 기업환경 편의성이 낮음
  -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sup>8)</sup>에 따르면 태국 이외 국가들은 기업 활동 환경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낮음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sup>9)</sup>는 바트 경제권 국가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평가함

<국가별 기업환경평가/부패인식지수>  
(단위: 순위)

	기업환경평가 (2012년)	부패인식지수 (2011년)
태국	18	80
베트남	99	112
캄보디아	133	164
라오스	163	154
미얀마	-	180
중국	91	75

자료: World Bank, T.I.  
주: 기업환경평가 185개국, 부패인식지수 183개국 대상.

<국가별 인프라구축 수준>  
(%)

	도로포장률 (2007년)	인터넷이용률 (2011년)
태국	-	23.7
베트남	47.6	35.5
캄보디아	6.3	3.1
라오스	13.5	9.0
미얀마	11.9	1.0
중국	53.5	38.4

자료: International Road Federation, World Bank.  
주: 인터넷 이용률은 100명당 인터넷이용자 기준.

8) 세계은행(World Bank)와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각국 기업 환경의 편의성을 조사해 매년 'Doing Business' 보고서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평가한다. 185개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사업 착수, 면허취득, 전기연결, 재산등록, 신용확보, 투자가 보호, 납세, 무역, 계약집행, 사업철수항목평가의 총 10개 항목(2012년 기준)으로 구성된다

9)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하기도 한다.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한다. 10점 만점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며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 (인프라시설 부족)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정비된 곳이 많지 않아 생산기지 건설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도로, 철도, 통신 등 미흡한 인프라 시설로 높은 물류 비용이 발생해 임금 경쟁력을 상쇄
  - 특히 라오스는 바트 경제권 국가 중 유일한 내륙국가로 항구가 없어 저렴한 해운물류 대신 육상 및 항공물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 (대내외 분쟁) 각 국은 영토 분쟁, 내전 등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높음<sup>10)</sup>

- (영토분쟁) 태국과 캄보디아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주변 지역, 베트남은 중국과 해상에서 영토 분쟁 상황에 직면
  - (캄보디아-태국 분쟁) 양국은 프레아 비히어(Temple of Preah Vihear) 힌두교 사원 주변 약 4.6km<sup>2</sup>의 국경 지역에서 대립중이며 2011년에는 양국 군대의 수차례 무력충돌로 수십명 사망
  -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2011년 7월 새로 설정된 사원 주변 잠정 비무장지대로부터 양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명함에 따라 현재는 군대 대신 경찰이 주둔한 상황
  - (베트남 남중국해분쟁) 베트남은 남중국해<sup>11)</sup> 지역에서 중국 등 6개국과 영유권 분쟁
  - 1988년 베트남-중국과의 교전 이후 현재까지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남중국해의 경제적 가치로 인해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내전·시위) 미얀마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투쟁, 태국은 남부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시위가 발생
  - (미얀마 내전) 일본으로부터 독립 이후 시작된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분리독립분쟁으로 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 수립 이후 반독재투쟁으로 발전

10)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www.kida.re.kr/woww) 참조

11)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중국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가리킴. 이 해역은 크게 4개 군도로 구분되며 난사군도에서는 6개국 전체,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중사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동사군도는 현재 대만이 점유). 해당 지역은 원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아시아 해양물류의 주요 수송로로 지리적, 경제적 가치가 높음

- 그러나 2010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이 해제되고 2011년 민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얀마는 민주화 및 정치적 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
- **(태국 남부 분쟁)**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남부 4개주<sup>12)</sup>에서는 종교갈등으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폭동·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 태국 국적의 남부 이슬람인들은 역사, 언어 및 생활면에서 말레이시아 문화권에 좀 더 근접하나 태국과 영국이 1909년 조약을 통해 현재 국경을 확정하게 되면서 불교(태국인)와 이슬람(남부 태국인)간의 갈등이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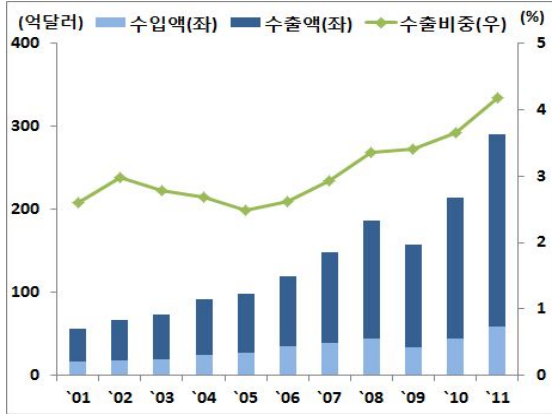
### 3.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 ○ (수출비중 및 투자규모 확대) 한국의 바트 경제권에 대한 수출비중과 투자 규모 모두 증가 추세

- **(수출비중) 상호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의 바트 경제권 수출비중 또한 상승**
  - 한국의 바트 경제권 수출이 증가하여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1년 2.6%에서 2011년 4.2%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1~8월) 현재 4.5%를 기록
  - 수입액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수준에 그침
  - 주요 수출 품목은 태국과 베트남에 철강·자동차 부품·반도체, 미얀마 건설광산 기계류, 캄보디아 편직물, 라오스 중고자동차 등이며 각국에서 목재류, 의류, 농수산물 등을 주로 수입함
- **(주요국·경제권 수출증가율 비교)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비교 시 한국의 바트 경제권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한국의 바트 경제권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001-07년 15.0%에서 2008-11년 20.8%로 증가
  - 주요 수출지역인 대중국 수출증가세가 23.7%에서 13.1%로 둔화되고 EU지역은 13.3%에서 -0.1%로 감소한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바트 경제권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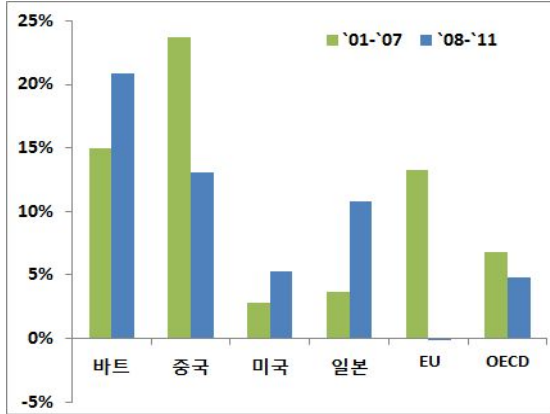
12) 파타니(Pattani), 사툰(Satun), 알라(Yala), 나라티왓(Narathiwat) 지역이 분쟁 중심 지역

<한국의 바트 경제권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계산.

<한국의 주요국·경제권 수출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계산.  
주: 연평균증가율 기준.

- (투자현황) 한국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건설을 주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

-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태국과 베트남은 제조업, 캄보디아는 부동산 및 임대업, 라오스는 건설업, 미얀마는 광업 중심으로 진출함
- 최근 삼성전자·포스코·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의 생산공장 건설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투자 규모(약 78억달러)가 확대되는 상황임

<한국 기업의 바트 경제권 투자현황>

	신고건수 (건)	법인수 (개)	투자금액 (천달러)
태국	1,739	674	1,793,085
베트남	6,377	2,402	7,793,518
캄보디아	1,952	654	1,827,950
라오스	160	73	176,515
미얀마	160	69	1,264,7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12년 6월 기준, 누계기준  
주2: 법인수는 신설법인수의 누적수치로, 철수한 법인수는 고려되지 않음.

<한국 기업의 바트 경제권 주요진출업종>

	업종	투자금액 (천달러)
태국	제조업	1,241,917
베트남	제조업	4,207,331
캄보디아	부동산업 및 임대업	772,323
라오스	건설업	64,072
미얀마	광업	1,028,32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1: 2012년 6월 기준, 누계기준  
주2: 통계청 표준사업분류 기준.

#### 4. 시사점

**첫째, 정부는 바트 경제권의 부상이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 바트 경제권 각국의 개방·개혁조치가 활발해지면서 최근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의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된 상황
- 정부는 바트 경제권 부상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 국가와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바트 경제권 국가들은 한국의 지난 개발·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둘째, 현 단계에서는 바트 경제권의 시장 규모보다는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진출 모색이 요구된다.**

- 이 지역은 중국·인도 시장과 접근성이 높고 임금경쟁력이 우수하여 중국에 이어 향후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국 기업에 유리한 행정제도, 노동자의 높은 이직률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셋째, 바트 경제권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우수한 임금경쟁력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인프라 기반, 열악한 기업환경, 사회 내 부정부패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태국을 제외하면 철도, 도로, 전력 및 통신 시설 등이 부족하여 생산기지 건설 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함
-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 부패가 만연하며 사업등록, 세제, 투자자 보호 등 기업 환경 또한 타국에 비해 우수한 편이 아님
- 또한 해당 국가 진출 여부를 결정할 때 저렴한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임금 대비 생산력 또한 검토해야 함
- 하지만 최근 각 국 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으로 국내 인프라 기업들에게 사업 진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넷째, 해당 지역 고유의 높은 정치·외교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진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 바트 경제권 국가들 간에는 역사적,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국경 지역 분쟁, 내전, 쿠데타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최근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요구됨 **HRI**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별첨> 바트 경제권 국가별 개요

1. 캄보디아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 내각책임제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 베트남·라오스·태국과 접경
면적	181,000km <sup>2</sup> (한국의 약 1.8배)
수도	프놈펜(Phnom Penh, 인구 약 150만명)
인구	약 1,500만명
민족	크메르족 90%, 베트남족 5%, 기타 5%
언어	크메르어(공용어) 95%, 영어, 프랑스어
화폐	리엘(Riel) / 1\$ = 4,050Riel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95%, 기타 5%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 만\$	6,293	7,275	8,639	10,352	10,414	11,255	12,890
1인당GDP(실질)	\$	455	514	603	711	703	753	853
경제성장률	%	13.3	10.8	10.2	6.7	0.1	6.1	7.1
물가상승률	%	6.3	6.1	7.7	25.0	-0.7	4.0	5.5
실업률	%	.	.	.	.	.	.	.
총투자/GDP	%	20.2	22.5	21.2	18.6	21.3	17.3	22.0
총저축/GDP	%	16.4	21.9	19.3	13.0	16.8	13.4	13.9
재정수지/GDP	%	-0.4	-0.2	-0.7	0.3	-4.2	-2.8	-4.1
경상수지		-727	-949	-900	-1,800	-1,634	-1,648	-2,350
수출	100 만\$	3,200	3,800	4,400	4,708	4,196	5,143	6,950
수입		3,927	4,749	5,300	6,508	5,830	6,791	9,300
외환보유액	100 만\$	1,159	1,411	2,143	2,641	3,288	3,802	4,069
외채	100 만\$	3,515	3,527	3,761	4,215	4,364	4,676	.

자료 : IMF.

## 2. 라오스

###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Lao PDR)
정부형태	인민민주공화제(인민혁명당이 유일정당)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 중국·미얀마·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접경
면적	237,000km <sup>2</sup> (한국의 약 2.4배)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인구 약 80만명)
인구	약 630만명
민족	라오족 55%, 크모족 11%, 몽족 8%, 기타 100여개 소수민족 26%
언어	라오어(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기타 소수민족언어
화폐	킵(Kip) / 1\$ = 8,000Kip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67%, 기독교 1%, 정령신앙 및 기타 32%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 만\$	2,726	3,564	4,226	5,293	5,597	6,855	8,302
1인당GDP(실질)	\$	474	610	712	879	916	1,105	1,320
경제성장률	%	6.8	8.6	7.8	7.8	7.5	8.1	8.0
물가상승률	%	7.2	6.8	4.5	7.6	0.0	6.0	7.6
실업률	%	-	-	-	-	-	-	-
총투자/GDP	%	-	-	-	-	-	-	-
총저축/GDP	%	-	-	-	-	-	-	-
재정수지/GDP	%	-3.6	-3.1	-2.6	-3.8	-6.5	-4.4	-2.9
경상수지		-329	-178	-144	-313	-408	-314	-250
수출	100 만\$	553	882	923	1,092	1,053	1,746	2,400
수입		882	1,060	1,067	1,405	1,461	2,060	2,650
외환보유액	100 만\$	239	336	540	639	619	713	-
외채	100 만\$	2,844	3,377	4,388	5,008	5,458	5,559	-

자료 : IMF.

### 3. 미얀마

####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정부형태	대통령제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북서부에 위치 태국·라오스·중국·방글라데시·인도와 접경
면적	677,000km <sup>2</sup> (한국의 약 6.8배)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인구 99만명)
주요도시	양곤(Yangon, 680만), 만달레이(Mandalay, 800만)
인구	약 6,200만명
민족	버마족 70%, 소수민족 25%, 기타 5%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태국어, 중국어, 영어
화폐	짜트(Kyat) / 1\$ = 5,6Kyat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90%, 기독교 5%, 이슬람교 4%, 기타 1%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 만\$	11,987	14,503	20,182	31,367	35,225	45,380	51,444
1인당GDP(실질)	\$	216	257	350	533	587	742	824
경제성장률	%	13.6	13.1	12.0	3.6	5.1	5.3	5.5
물가상승률	%	10.7	26.3	32.9	22.5	8.2	8.2	4.0
실업률	%	4.0	4.0	4.0	4.0	4.0	4.0	4.0
총투자/GDP	%	13.2	13.7	14.6	13.1	14.7	16.0	14.7
총저축/GDP	%	18.8	23.7	17.6	12.9	14.7	16.8	17.5
재정수지/GDP	%	-1.5	-2.3	-2.0	-0.7	-3.5	-5.1	-5.9
경상수지		1,868	2,001	3,006	2,626	2,314	3,901	219
수출	100 만\$	3,776	4,539	6,253	6,882	6,662	8,661	9,238
수입		1,908	2,538	3,247	4,256	4,348	4,760	9,019
외환보유액	100 만\$	782	1,248	3,102	3,730	5,265	5,729	7,016
외채	100 만\$	7,014	7,264	8,241	8,002	8,186	6,352	-

자료 : IMF.

#### 4. 태국

#####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 내각책임제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서부에 위치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와 접경
면적	513,000km <sup>2</sup> (한국의 약 5.1배)
수도	방콕(Bangkok, 인구 약 700만명)
인구	약 6,400만명
민족	타이족 75%, 화교 14%, 기타 11%
언어	타이어(공용어), 영어
화폐	바트(Baht) / 1\$ = 30.5Baht (2011년 기준)
종교	불교 95%, 이슬람교 4%, 기독교 및 기타 1%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 ② 경제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 만\$	176,352	207,089	246,977	272,578	263,711	318,908	345,672
1인당GDP(실질)	\$	2,825	3,296	3,918	4,300	4,151	4,992	5,395
경제성장률	%	4.6	5.1	5.1	2.6	-2.3	7.8	0.1
물가상승률	%	4.5	4.6	2.2	5.5	-0.8	3.3	3.8
실업률	%	1.9	1.5	1.4	1.4	1.5	1.0	0.7
총투자/GDP	%	31.4	28.3	26.4	29.1	21.2	25.9	26.6
총저축/GDP	%	27.1	29.4	32.8	29.9	29.5	30.1	30.1
재정수지/GDP	%	1.5	2.2	0.2	0.1	-3.2	-0.8	-1.6
경상수지		-7,980	2,080	12,564	-3,271	17,176	10,250	-2,446
수출	100 만\$	110,178	130,803	153,858	175,897	151,910	195,371	226,402
수입		118,158	128,723	141,294	179,168	134,734	185,121	228,848
외환보유액	100 만\$	52,065	66,985	87,455	111,008	138,418	172,129	175,124
외채	100 만\$	46,362	45,901	45,306	49,839	57,886	71,263	-

자료 : IMF.

## 5. 베트남

### ① 개황

항목	내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정부형태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 중국·라오스·캄보디아와 접경
면적	331,000km <sup>2</sup> (한국의 약 3.3배)
수도	하노이(Hanoi, 인구 약 270만명)
주요도시	호치민시(590만명), 하이퐁시(190만명), 다낭시(80만명)
인구	약 8,900만명
민족	베트남족 89%, 기타 53여개 소수민족 11%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기타 소수민족언어
화폐	동(Dong) / 1\$ = 20,500Dong (2011년 기준)
종교	무교 80%, 불교 10%, 가톨릭 7%, 기타 3%
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7)

자료 : CIA.

### ② 경제 지표

	단위	'05	'06	'07	'08	'09	'10	'11
국내총생산(실질)	100 만\$	52,931	60,933	71,112	90,302	93,170	103,575	122,722
1인당GDP(실질)	\$	637	724	835	1048	1068	1174	1374
경제성장률	%	8.4	8.2	8.5	6.3	5.3	6.8	5.9
물가상승률	%	8.4	7.5	8.3	23.1	6.7	9.2	18.7
실업률	%	5.3	4.8	4.6	4.7	4.6	4.3	4.5
총투자/GDP	%	35.6	36.8	43.1	39.7	38.1	39.0	29.9
총저축/GDP	%	34.5	36.5	33.3	27.8	31.6	34.9	30.0
재정수지/GDP	%	-1.3	0.3	-2.2	-0.5	-7.2	-3.1	-3.2
경상수지		-4,319	-5,189	-14,121	-18,029	-12,853	-11,542	-7,135
수출	100 만\$	32,442	39,826	48,561	62,685	57,096	72,237	96,906
수입		36,761	45,015	62,682	80,714	69,949	83,779	104,041
외환보유액	100 만\$	9,216	13,591	23,748	24,176	16,803	12,926	14,046
외채	100 만\$	18,992	18,577	22,713	24,954	28,718	35,139	

자료 : IMF.